

한국 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 철 우 (맥슨전자(주) 해외영업 2과)

1970년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섬유, 신발 등의 경공업에 이어, 전자산업은 1970년대 연평균 39%, 1980년대 연평균 29%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면서 국내 수출 선도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미국, 일본 등의 선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급속한 전자산업의 성장과정에는 '80년대 들어 대선진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국내적으로 임금 등의 급속한 상승등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저부가가치 분야는 점차 해외로의 이전을 통해 참여한 국제환경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투자기업이 외국의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자본 뿐만 아니라 무형의 경영자원인 기술, 특허, 상표권, 경영 또는 마케팅 노하우 등 기업의 제반 자원을 패키지(Package)한 형태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해외시장 진출방식 중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전략이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81년 금성사의 미국 알라바마주의 칼라 TV공장 설립을 시초로 북미·유럽지역으로 확대되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필리핀, 태국 등의 동남아 지역으로의 투자비중이 높아져 왔다.

최근에는 베트남, 중국이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각광을 받고있다.

해외직접투자의 주된 동기로는 첫째,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특징인 소품종 대량수출과 미국, 일본, 유럽에의 지역편중 현상이 두드러져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와 고용증대를 이유로 쿼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무역마찰이 발생하여 현지수출시장에서의 직접생산 판매와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특히 '90년대 들어 EC, NAFTA, APEC 같은 지역 블록화 현상이 뚜렷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편중도가 높은 기업들은 기존시장의 판매망과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현지 진출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둘째, 1980년대 중반이후 민주화의 무드와 함께 일기 시작한 높은

인건비의 상승과 3저 현상에 힘입은 무역수지 흑자 지속으로 원화 가치가 절상되어 가격 경쟁력이 일본, 유럽 및 동남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크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과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수 있는 동남아지역으로의 진출이 러시를 이루게 된 것이다.

한국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표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 초기에는 북미, 유럽 등 선진국의 투자비중이 높았으나 '80, '90년대에 접어들어 동남아 지역이 전체 투자 건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투자기준면에서도 전체지역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베트남 지역에 대한 엠바고철회와 중국의 적극적인 해외자본 유치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해외투자기업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초기의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이 무역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선진국에 진출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88년이후 임금상승에 의한 저부가가치를 상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원자재 구매 용이와 대기업에 대한 부품조달을 위해 대기업이 편승하여 중소기업과 동반진출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이 해외로의 이전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지시장에서의 다국적 기업에서의 선진국 형태의 해외진출과의 경쟁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나아가 해외

직접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에 있어 기본여건의 조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투자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현지국과 여타국의 진출기업에 대해 기술적인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비용상승의 압력이 해외직접 투자의 게임요인이 되었으나 이제는 이를 기반으로 신시장개척의 측면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접투자는 국내 경영에

비해 훨씬 많은 위험과 돌발사태를 내포하고 있음으로 국제 경영관리 능력과 감각을 지닌 전문 경영인과 관리인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상이한 관습과 정치적 중요정보의 부재로 말미암아 의욕적인 투자전략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있다.

사전에 명확한 진출계획을 설정, 검토하고 현지국의 문화 등 제반 환경과 업체 외환 등 자금조달 형태 그리고 예상경쟁 기업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기회와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투자욕을 자극할 수 있는 세계 금융상의 혜택 등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할 제도적 장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본회와 스코틀랜드 투자개발 위원회(LIS)가 공동주관한 12월 우수원고로 채택된 원고입니다.

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 지역별 현황

		북미	유럽	동남아	기타(공산권 포함)
투자건수	1985 이전	1	1	1	
	1985~1989	8	9	14	11
	1990~1991	11	5	35	13
	비중 (%)	18.3	13.8	45.9	21
투자대수(1991. \$)		88.196	28.573	140.879	19.896
비중 (%)		28.5	11.1	54.7	77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 통계연보

투자액수 : 단위 : 천 달러

용어해설

테크노폴리스

반도체 전자 신소재 등의 첨단산업과 공과대학 민간연구소의 학술기능 및 주거공간이 조화를 이룬 첨단기술 집적도시를 의미한다.

일본의 쓰쿠바과학기술도시,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 대만의 신죽과학공업단지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대덕연구단지가 이에 속한다.

테크노마트

일종의 기술정보시장으로 첨단기술의 전시, 상담, 알선, 홍보, 유통, 판매등을 위한 기술박람회 또는 기술백화점이다.

지금까지 도교를 비롯한 5곳에서 기술박람회가 열렸다.